

톱스타 원앙 부부... 부동산 투자 안목 좋네

원조 꽃미남 스타 손지창은 1989년 KBS 특채 탤런트로 데뷔해 1990년 대학생 시절 등록금을 벌기 위해 CF 엑스트라로 연예계에 첫발을 디뎠다.

1990년 KBS 드라마 '사랑이 꽃 피는 나무'에서 조연으로 얼굴을 비춘 뒤 이듬해 드라마 '무동네 집'에서 신인답지 않은 뛰어난 연기로 이름 석 자를 각인시켰다. 처음에는 출연 분량이 적었지만 점점 늘어나 시청률이 급상승하면서 청춘스타로 떠올랐다.

뛰어난 가창력을 토대로 배우 데뷔 전인 1991년 작곡가 유정연에게 발탁돼 가수로 활동했다. 보컬 트레이닝을 받은 후 1992년 앨범 '손지창 1집'을 발매했으며 수록곡 '내가 너를 느끼듯이' '혼자만의 비밀'이 사랑받으며 가요 프로그램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1990년대 초반에는 가수 겸 배우 김민종과 초콜릿 제품 광고에 함께 출연해 부른



CF 송 '너만을 느끼며'로 인기를 끌었다. 이를 계기로 둘은 2인조 그룹 '더 블루'를 결성해 듀엣 앨범을 발표했다. 드라마 '느낌'의 OST인 '그대와 함께', 2집 타이틀곡 '친구를 위해' 등이 연속 히트하며 KBS 가요대상 올해의 가수상 본상을 받았다.

이후 1990년대 방영한 '금잔화' '걸어서 하늘까지' '일요일은 참으세요' '마지막 승부' '느낌' '여울목' '행복의 시작' '예감' '젊은 태양' 등 여러 드라마에 출연한 뒤 1994

년 '마지막 승부'를 통해 톱스타 반열에 올랐다.

1998년에는 배우 오연수와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오연수는 1990년대를 대표하는 스타로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89년 MBC 공채 탤런트 19기에 합격한 후 이듬해 MBC 드라마 '춤추는 가얏고'의 주연으로 발탁돼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

대표작은 '여명의 눈동자' '일요일은 참으세요' '내일을 향해 쏴라' '사랑과 성공' '두 번째 프리포즈' '주몽' '나쁜 남자' 등이 있다. 차기작은 올해 10월 MBC 방영 예정인 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다. 한국 최고의 프로파일러가 자신이 수사 중인 살인 범죄와 연관된 딸의 비밀을 알게 되며 겪는 달레마를 그린 가족 심리 스릴러다.

극 중 장태수(한석규 분)의 전처이자 장하빈(채원빈 분)의 엄마 윤지수를 연기한다. 장태수와 장하빈 부녀 서사의 중심에서 있는 캐릭터로 극의 미스터리를 증폭

시킬 예정이다.

손지창은 오연수와 결혼 후 '소문난 여자' '선물' '영웅시대' '삼총사'에 출연했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과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 '영웅시대'에서 이병철 회장의 셋째 아들 고(故) 이건희 회장의 젊은 시절을 연기해 호평받았다.

방송 활동을 오랜 기간 쉬다가 이따금씩 '꽃미남'과 '스타골프비그' 등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며 얼굴을 비추며 지난해 아내와 함께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해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를 전했다.

한편 부부의 부동산 재력이 화제다. 부부는 공동 명의로 2006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부지(대지면적 394.6㎡)를 41억 원에 매입한 뒤 2007년 건물을 신축했다. 이후 2021년 2월 152억 원에 매각하면서 100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



손지창 오연수 배우

또한 2017년 8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소재 A아파트(사진) 한 호실을 공동 명의로 27억5800만 원에 매입했다. 해당 호실은 공급면적 201.22㎡(약 60.86평)·전용면적 159.603㎡(약 48.27평) 규모로 다른 타입과 다른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가 올해 7월 매매된 110억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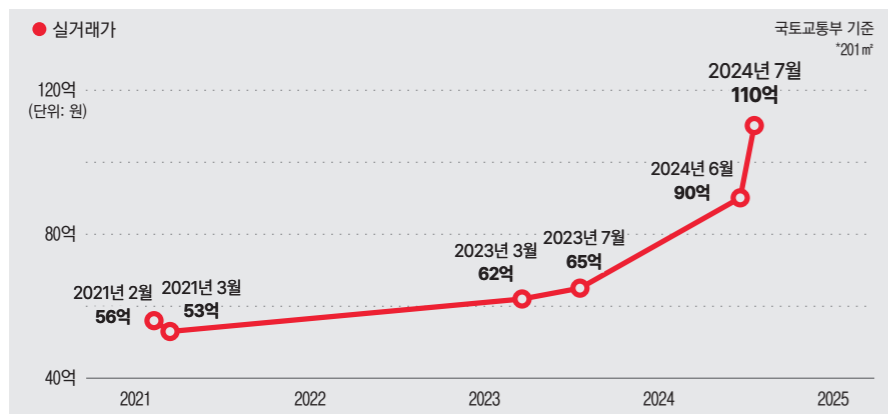
2021년 입주를 시작한 단지는 2개동·280가구로 구성됐으며 분양 초기에는 고분양가로 미분양이 속출했었다. 하지만 인근에 트리마제·갤러리아포레 등 고급 아파트들

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인기가 급상승했고 지역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분양이 모두 완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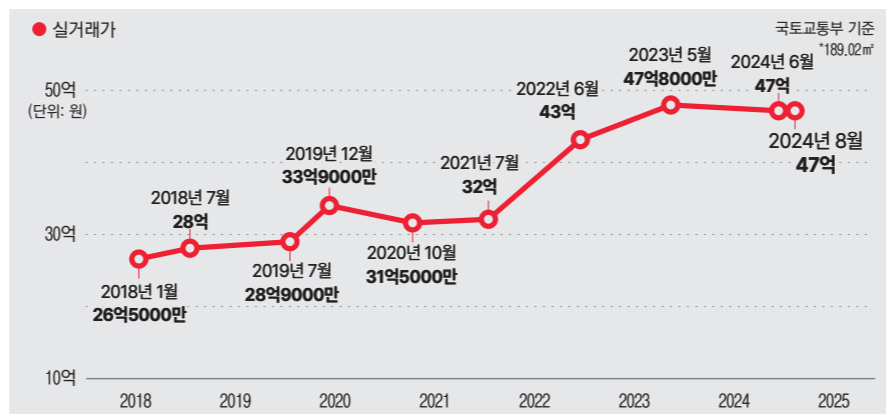
강변북로로 접근할 수 있는 교차로가 인접해 있고 무지개타널을 지나면 성수대교로 진입할 수 있어 편리한 교통이 장점이다. 서울숲에서 가족·애완동물과 산책하기 좋고 인근에 맛집과 카페도 즐비하고 메가박스 성수점 등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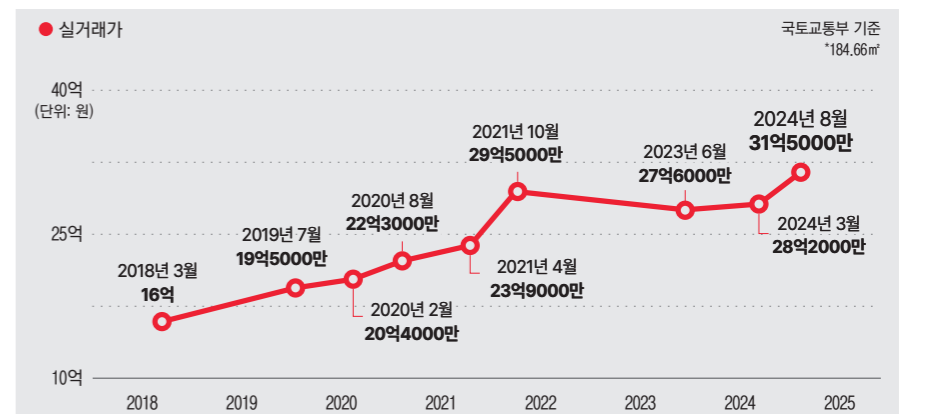
아크로서울포레스트



트리마제



서울숲힐스테이트



이도희

현)모락스 회장



이도희 모락스 회장은 고려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협성기업을 거쳐 범주해운 영업 이사를 지낸 뒤 1987년 종합물류기업 모락스를 창업했다. 모락스는 신속하고 정확한 국제운송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정신 아래 지속적인 투자와 다양한 물류 기법을 개발해 국제종합물류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수많은 물류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자사 창고를 활용해 수입·공내륙운송·수출 등 물류 전반 과정에서 비용 절감 방안을 화주사에 제안하는 물류 컨설팅 업무도 함께하며 성장했다. 올해 1월 이 회장은 2023년 6월 향년 76세에 세상을 떠난 배우자 고(故) 윤진수 씨 이름으로 1



억 원을 기부해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가입했다. 이 회장은 "생전 기회가 된다면 적십자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자던 아내의 뜻에 따라 기부를 결심했다"며 "아내의 삶을 나눔으로 아름답고 뜻깊게 기억할 수 있어 큰 영광이며 아내에게도 큰 위안과 보람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정환

현대성마이맥 사회탐구 강사



임정환 대성마이맥 사회탐구 강사는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했다. 비상에듀 강사를 거쳐 현재 대성마이맥에서 사회탐구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사회탐구 1타 강사인 그는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콘텐츠로 수험생들의 집중력을 올리고 유쾌한 설명을 곁들여 수험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학생들 사이에서 재미와 뛰어난 강의력을 겸비하면서 대성마이맥 입성 초기에 비해 엄청난 인지도 상승으로 1타 강사가 됐다. 임 강사는 2018년 12월부터 매달 1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정기후원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확산됐던 2020년에는 그가 대표로 재



직 중인 교육 콘텐츠 개발 업체 '열정사랑' 명의로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고액 기부에 대해 "제가 그동안 누려온 사회적 혜택이 온전히 자신의 몫이 아니라고 평소에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무림

전)연세대음악대학성악과 교수



한국 최고의 서정적 테너로 독보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강무림 전 연세대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는 연세대 성악과를 나와 이탈리아 루시니 국립음악원(성악 석사) 및 오시모 아카데미아를 졸업했다. 1991년 이탈리아 엔나 국제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벨리니 국제콩쿠르·볼피 국제콩쿠르 등에 입상했다. 베나미노 질리 탄생 100주년 기념 세계 10테너 연주 한국대표로 나갔고 2011년 제4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남자주역상 수상을 비롯해 미국·영국·스웨덴·이탈리아·독일·스페인·이스라엘·브라질·호주·일본·중국·캄보디아·방글라데시·홍콩 등 국내외에서 독창회 및 오

페라 주역으로 2500여 회 이상 연주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서정적 테너로 KBS 1FM 선정 '한국의 음악가' CD를 제작한 그는 '고독' '산들바람' '보리밭' '가고파' 등의 가곡을 불렀다. 2009년부터 연세대 음대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썼다.



한국환경공단은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구를 위해 ESG경영을 실천합니다

